

사비시대 부여지역 가람건축의 특성에 관한연구

- 평지 1탑식 가람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uyeo district's Buddhist Temple Architecture in Sabi dynasty

- Focus on the plot plan for a tower on Flatland -

이 동 영*

Lee, Dong-Young

Abstract

The main characteristic of one tower style temple on flatland, as a type of early buddhist temple, is to have been built on level ground near the capital city with their intent to be connected with power group in those days. Two kind of one tower temples on flatland had mostly been constructed: Wondang(longing temple) and National temple, and they greatly contributed to popularization of Buddhism.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amples of one tower temple plot planning made by centering around Puyeo district of Sabi dynasty, and in another aspects, examine the influence on our traditional temple architecture and the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because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we have researched in the documents and fruit of an excavation about one tower style temple in Puyeo district in Sabi dynasty, so it will be helpful in studying Buddhist temple architecture system in Puyeo district in Sabi dynasty.

키워드: 사비시대, 부여지역, 평지1탑식, 가람건축 특성,
sabi dynasty, puyeo districts, a tower on flatl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templ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궁전이나 혹은 불탑요소를 본 따 석가모니의 집 즉, 가람 공간을 구성시킨 중국의 가람조영술이 백제에 도입되어 장구한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서 토착화되고 정치,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면서, 가람건축 문화의 독특한 양식을 형성했다. 종교의식은 시대적인 변수와 더불어 가람조영의 발전을 가져와 다양한 형태의 가람제도가 변천, 전개 되었다. 그 중 평지1탑식 가람은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전통 가람의 배치법 가운데 그 중요한 한 획을 이루는 평지 1탑식 가람 배치를 사비시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 가람건축에 작용한 점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의 한국 전통 건축의 의미를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비시대 부여지역 1탑식 가람들의 구성에 관한 문헌 고찰과 그 간의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백제

사비시대 부여지역의 가람건축 조영체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 정회원, 우송정보대학 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백제 사비시대 부여지역에 유적으로 남겨진 대표적인 평지1탑식 가람지체도를 중심과제로 하여 진행된 논문으로써 먼저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가람들의 연혁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각 기관 및 단체의 조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근거하여 연구의 토대를 기초하였으며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미진한 부분 등을 보충하여 백제 사비시대 부여지역 가람제도의 발전과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문의 연대적 범위는 백제의 사비시대로 정하였고 지역적 범위는 명확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부여지역에 소재하는 대표적인 6개의 가람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1.3 선행연구 및 조사고찰

백제 사비시대 부여지역 가람에 관한 조사 및 선행연구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고학계, 건축학계, 미술사학회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발굴조사 업적과 상당량의 귀중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는데 그 대상 및 내용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사비시대 부여지역 가람 건축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대상	연구·조사기관(조사자)	기간	내용
군수리 사지	조선고적연구회 (石田茂作)	1936	금당, 강당, 목탑지 등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5~06	목탑, 금당지 등 확인
동남리 사지	조선고적조사연구회 (石田茂作)	1938	금당, 강당, 중문, 석조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강당터, 지대석 일부확인
금강사지	국립박물관	1964	목탑, 금당, 남회랑, 부속건물지 등 확인
정림사지	국립박물관	1942~43	부분적 발굴
		1979~80	중문터, 5층석탑, 금당, 강당터 확인
능산사지	국립부여박물관	1995	목탑, 금당, 남회랑, 부속건물지 등 확인
왕흥사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3	목탑, 금당지 등확인
		2007~08	

2. 가람건축 배치의 변천

2.1 가람(伽藍)의 어원과 성립 과정

가람의 어원은 인도의 범어인 ‘상가람마(Sangharama)’로서 그 뜻은 불교 교단을 구성하는 비구(比丘)와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모여 산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다시 ‘사(寺)’ ‘사원(寺院)’ ‘사찰(寺刹)’ 등으로 부르는 ‘승가람마(僧伽藍摩)’로 표시하였고 이를 다시 줄여서 ‘가람(伽藍)’으로 부르게 되었다.¹⁾

원래 가람건축은 불교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며 불교의 수행상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의 계절과 날씨 탓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성립되었다. 즉, 인도에는 일정한 우기가 있는데 이때에는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불교적 수행 방법이 불가능하여 인근 친척이나 모르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기의 안거²⁾제도가 차츰 정립되면서 승려들은 한곳에 모여 불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고 부유한 신도나 왕족이 불교에 ‘원림(園林)’³⁾을 기증하여 승려들을 머무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승려들의 집합 장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불교 사찰로는 ‘죽림정사(竹林精舍)’⁴⁾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규모가 대략 오두막 60여 채 정도의 크기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사는 점차 형식성이 가미되면서 규모도 커지게 되어 이후 석가 당시 최대의 사찰이라고 하는 ‘기원정사(祇園精舍)’⁵⁾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원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수행처에서 종교 의례를 집행하는 성소로 변해갔으며 중생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성격의 수도처로 변해갔다. 더욱이 불교의 교세 확장에 따라 점차 가람의 규모와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각 나라마다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에 융합되어 불교 가람건축 문화는 동양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중심 세력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가람건축의 배치는 건물이 입지하는 형식에 따라 크게 평지식과 산지식으로 구분한다.⁶⁾

고대 건축은 보통 종교건축이 중심이 되어 발전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일반건축은 물론 종교건축도 궁전건축을 표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AD 4세기 후반기에 불교가 고구려에 도입되면서 곧 초문사와 이불란사가 375년에 창건된 이후 수많은 사찰들이 조영되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초기에 창건된 사찰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고, 고구려시대에 중국에서 형성된 가람배치 양식이 도입되어 세워진 청암리사지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람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한국 평지 1탑식 가람의 변천

고대 건축은 보통 종교건축이 중심이 되어 발전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일반건축은 물론 종교건축도 궁전건축을 표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AD 4세기 후반기에 불교가 고구려에 도입되면서 곧 초문사와 이불란사가 375년에 창건된 이후 수많은 사찰들이 조영되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초기에 창건된 사찰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고, 고구려시대에 중국에서 형성된 가람배치 양식이 도입되어 세워진 청암리사지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람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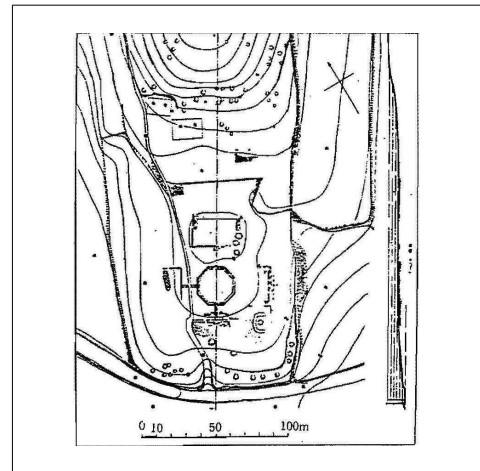


그림 1. 청암리사지 배치도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고구려 사원터는 평양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에서 발견된 원오리사지,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의 상오리사지, 그리고 평양 교외의 정릉사지와 청암리사지 등이다. 이 가운데 원오리사지는 거의 배치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 세 곳이 비교적 사지의 중심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중심에 팔각형의 탑지로 보이는 건물터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평양 대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오리사지는 8각형의 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3개 있는 형태로 청암리사지와 유사하다.

1) 한국전통건축연구회, 사찰건축, 황토, 1997, p.257
 2) 안거(安居): 중이 일정기간동안 출입하지 않고 한데모여 수행하는 일, 인도의 雨期에 출입이 어려운데서 생긴 제도, 후에 겨울에도 행하였음
 3) 원림(園林): 정원이나 공원의 나무와 숲, 곧 승려의 수행처, 절을 말함.
 4) 죽림정사(竹林精舍): 불교 최초의 가람으로서 인도 마갈타국 가란타촌에 있던 절.
 5) 석존 재세시 중인도 사위성 기수급 고독원에 지은 절, 수달장자가 기증하여 7층의 규모로 자못 장려하였다고 함.
 6) 한국전통건축연구회, 전계서, p.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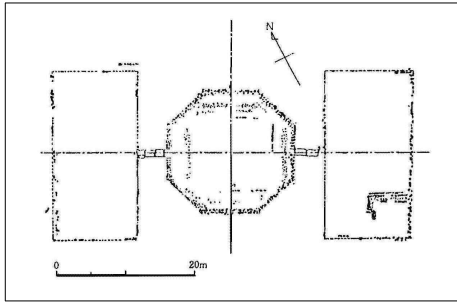


그림 2. 상오리사지 배치도

평지 1탑식 배치방법은 평지 가람으로서 1탑을 중심으로 하여 금당, 강당, 중문 등을 배치하고 회랑을 만든 것이다. 모두가 평양 대동강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사찰은 우리나라 초기 불사건축 형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이다. 전체 형태가 5성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1탑 3금당식의 전형적인 고구려식 배치로 유명하다. 이러한 특이한 배치는 중국 한대의 사기 천관서에 나오는 오성좌가 황도를 중심으로 동궁, 서궁, 남궁, 북궁이 있고 북쪽에 중궁이 있는 것과 배치형식이 같다. 전체적인 배치는 중앙에 목탑지로 보이는 8각형 건물 유적이 있고 동서쪽에 금당, 남쪽으로는 문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 탑, 금당을 잇는 축이 이 사찰의 중심축을 형성 하는데 전형적인 고구려 평지 사찰의 배치방식이다. 이러한 배치방식은 백제로 전승되었으며 후에 백제 가람배치 형식인 일탑식 가람배치가 형성되도록 하는 모체가 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백제 가람배치는 1탑을 중심으로 하며 중문, 탑, 금당, 강당의 건물 중심들이 자오선 상에 놓이게 좌우대칭으로 배치하고 회랑을 돌린 것이다. 그 예로는 부여 정림사지와 백제 장인들에 의해 지어진 신라의 황룡사지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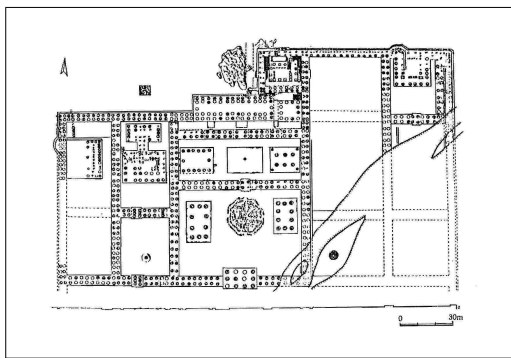


그림 3. 정림사지 배치도

2.3 사비시대 부여지역 평지 1탑식 가람

불교가 처음으로 백제에 들어온 것은 침류왕 원년(384)으로 그 이듬해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성왕대에 와서 불교가 진흥한 이후 중국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장엄한 불교사찰을 건축하게 되었다. 백제의 가람배치의 특징은 1탑 1금당식으로, 가운데 문과 그 문을

중심으로 1탑, 그리고 금당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의 배치하고 회랑을 이루고 있다.⁷⁾ 당시의 불교 특성상 도성에 지어진 경우가 태반이었으므로 대부분 회랑이 있는 평지 사찰이었고 불교의 발전상 탑을 승배의 대상으로 하는 탑 중심의 사찰이 전반적인 유형이었다. 이러한 백제의 사찰 배치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고구려의 청암리 사지에서 볼 수 있듯이 탑을 중심으로 동서, 북방에 금당을 세 개 배치(군수리 사지, 일본의 아스카 사지)하였으나 후대에 오면서 중국식의 배치방법을 받아들여 오늘날 볼 수 있는 1탑 1금당식으로 발전하였다. 백제는 사비천도를 계기로 관제작업에 착수하여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념 기반도 모색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이와 관련해 불교이념이 그 지배질서의 확립, 사상통일, 국력집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비천도를 단행한 성왕자신이 열렬한 불불론자 이었으며, 그 제도적 정비작업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비시대 가람유적은 웅진시대에 비해 자료와 유구가 많다. 사비시대 가람 역시 웅진시대의 그것과 같이 중앙에 탑을 하나 세우고 중심축선을 설정한 다음 후면에 금당, 강당을 놓고 주위를 회랑으로 둘러싸는 일탑식 가람배치이다. 그 실례로 정림사, 금강사, 군수리절터 등이 다수 남아있어 사비시대 백제 불교건축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⁸⁾

3. 사비시대 부여지역 평지1탑식 가람 사례분석

3.1 군수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9-1번지 구릉지대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군수리사지는 6세기중반 창건된 가람으로 추정된다. 부여읍 군수리에 있는 이 절터는 1935~1936년에 일본인 石田茂作에 의하여 발굴,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5~2006년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2차 발굴되어 목탑 금당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35년 조사된 동북방 기단(추정 금당지)은 2005년 재발굴 조사 시, 해당지역이 삭평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평면규모는 기단상면이 대체로 삭평되어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⁹⁾

군수리사지는 부여 남쪽 평지에 강을 면하여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의 유지가 있으며, 금당 좌우에 건물지가 있고, 강당 좌우에 종루 및 경루로 보이는 건물지가 있다. 발굴조사결과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에 50개의 보도 흔적이 발견된 탑지는 13.8cm의 정방형이고 거기서 8m 떨어진 금당지는 동서 27m, 남북 18m이며, 여기서의 거리에 있는 강당은 동서 50m, 남북 18m이며, 북쪽 벽에는 동서중앙에 있는 금당 동서 벽에서 25.5m 떨어진 위치에 남북 15m, 동서 13.2m 건물지가 하

7)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10, p.127.

8)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대한건축학회, 기문당, 2009 p.152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중일 고대사지비교연구(1) 문화재청, 2009, p.32

나씩 있는데, 발굴조사 당시 완전한 발굴을 하지 않았으나 그 배치방법이 고구려 시대의 청암리사지의 배치와 흡사한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발굴 결과 남향한 일탑 일금당식 가람으로 남쪽에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이 남북축에 맞추어 배열되고 중문터의 양측과 강당터 양측(여기에는 중루, 경루)터로 추정되는 방형 건물터가 각 한 개씩 놓여 있었으므로 회랑은 이곳에 연결됨을 연결하는 회랑터가 중심부를 방형 평면을 이루면서 둘러져 있다.¹¹⁾ 동, 서 회랑터의 외곽에는 금당터가 동서축을 맞추어 놓은 듯 한 건물터가 각 한 개씩 있는 것으로 보아 회랑 밖에도 건물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횡으로 여러 건물구를 이루는 배치방식은 익산 미륵사나 고구려의 정릉사 등에서 흔히 조영됐던 형식이다.¹²⁾ 전체 배치는 일탑식을 따르고 있고 강당 좌우에는 같은 크기의 두 건물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아스카 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군수리 사지도 금당3동이 탑을 중심으로 동서 북방으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3금당식 가람배치는 당시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벽에는 동서4.8m 남북9m의 돌출부가 있어 특이하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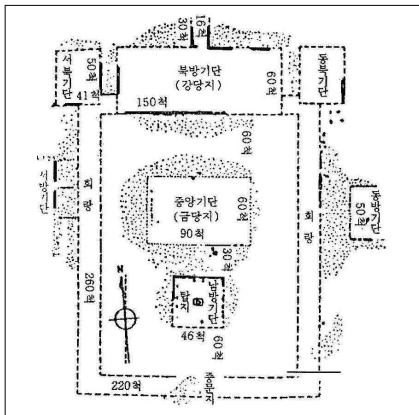


그림 4. 군수리사지 배치도

3.2 동남리사지

이 절터는 부여읍 동남리 211-1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향한 가람에다 남에서부터 중문, 금당, 강당터가 남북축선상에 놓이고 중문과 강당터를 연결하는 회랑터가 가람 중심곽을 이루고 있다. 동남리사지는 군수리보다 백마강근역 북쪽 성산 밑에 있는 사지로서, 1938년(소화13) 역시 石田茂作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고적조사연구회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이사지의 가람배치는 군수리 것과는 달리 금당, 강당 및 중문의 중심이 자오선 상에 위치한다. 금당 앞에 탑지가 없고, 그 대신 좌우에 석축으로 된 석수조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¹⁴⁾

조사에 의하면 이사지의 가람배치 방식은 탑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중문과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강당지의 좌우에는 건물지가 있다. 경루로 보이는 이 건물지의 중문 좌우에는 회랑이 있는데 동서 회랑으로 이어지며 강당지 좌우의 경루지까지 이어져 있다. 이 사찰에 탑이 없는 이유로는 과거 신라시대의 고선사지와 같이 금당역과는 달리 별도의 쌍탑의 탑지를 두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설과, 불국사 극락전과 같이 개인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의 성격이 강해 탑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설이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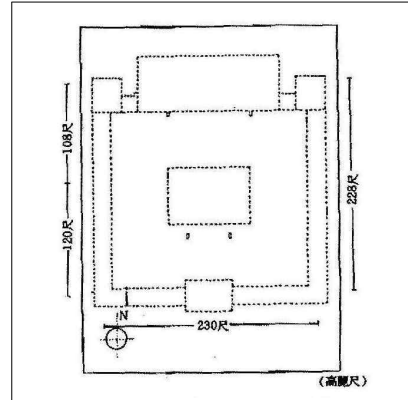


그림 5. 동남리사지 배치도

사찰의 전체 규모는 약4960m² 고구려 척으로 가람의 동서 폭이 약 230척이고 중문과 금당지의 중심거리, 금당지와 강당지의 중심거리가 108척으로 합하여 216척이 된다. 이 사찰의 주요 특징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탑이 없다는 것과, 중문지의 남쪽에서 약간 떨어져 남문터로 보이는 유구가 있어 우리나라 사지 조사에서 처음으로 남문지가 확인된 유구라는 점이다.

최근 1993년의 조사로는 강당지, 기단, 대지석 일부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명확한 성격 파악이 힘들었다고 한다.¹⁶⁾ 그밖에 남석제 불상 조각과 와제 광배 조각, 동제 금구 조각, 동제 불상 조각 등 다양한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 동남리사지는 특이한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는 절터로 정림사지, 군수리사지등과 함께 백제시대의 불교사원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절터 앞을 지나 나성의 서쪽문지에 이르는 작은 길은 백제시대 때부터 사용되던 길로 추정되고 있다.

3.3 금강사지

부여 은산면 금공리 13-1번지 원미산 능선하단부 평탄한 대지에 위치한 금강사지는 7세기전반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로서 1964년과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하였는데 발굴 조사 시 중문, 탑, 금당 및 강당을 동

10)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p.128.

11) 윤장섭, 한국의 건축 . 동명사. 1996. p.127

12) 대한건축학회편, 한국의 건축사, 기문당, 2000, p.156

13)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10. p.143

14) 조선고적조사연구회, 부여동남리 폐사지 발굴조사. 고적조사

보고. 1938. p.75

15)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일본의 백제계상탑, 가람, 마한 백제문화제5집. p.155

16) 대한건축학회. 전게서. p.156

서중심축선에 따라 동향하여 건축한 일탑 일금당식임이 밝혀졌다.¹⁷⁾ 즉 사찰의 중심축이 남북방향이 아니고 동서 방향으로 동향을 하고 있는 점에서 백제의 다른 가람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중문, 탑, 금당, 강당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고 그 주위 회랑을 두른 형태이다.¹⁸⁾ 이렇게 동향으로 가람이 배치된 것이 지형조건 때문인지 혹은 교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평탄한 평지에 놓인 이 절터는 반드시 지형에 구애되어 동향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건물의 배치는 백제의 전형적인 일탑 일금당식 가람을 동서축에 맞추어 동쪽에서부터 중문과 탑, 금당 그리고 강당터가 놓였다.

이 절터에서는 중문과 강당 양측으로 회랑이 연결되어 있는데, 강당 옆에 중루나 경루가 없이 회랑이 직접 강당에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강당지의 북쪽으로는 승방지로 확인되는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남쪽회랑 밖에도 승방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사찰의 중심부분 외곽으로 강당의 뒤와 강당을 중심으로 한 좌우측에 승방이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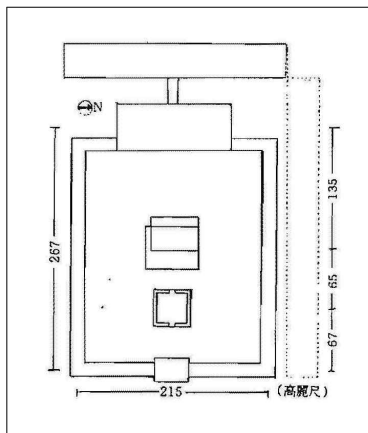


그림 6. 금강사지 배치도

백제의 사지 중에서는 이 같은 예가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남원 만복사, 개성 연복사 등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형식은 일본에 전해져서 법륜사의 동전서탑, 법륜사 몇 법기사의 서전동탑배치를 만들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당시 일본 아스카 시대의 가람은 백제의 1탑식 가람배치를 사용하였다.¹⁹⁾

사찰의 규모는 고구려 척으로 남북 폭이 약 215척, 중문에서 강당까지의 중심거리가 약 290척으로 군수리 사지의 중심부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중문에서 탑까지의 중심거리는 67척이며 탑지와 초창기 금당터까지의 중심거리는 65척으로 이두건물의 거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탑지는 여러번 중창이 되었으며 본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와당이 대표적이다.²⁰⁾

17) 윤장섭, 한국건축사, 전제서, p. 143

18) 대한건축학회편, 한국의 건축사, p. 153

19) 충남대학교 박물관, 정림사, 충남도청, 1981, p.25

3.4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는 583년 백제가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서 부여 시내 한가운데 남향해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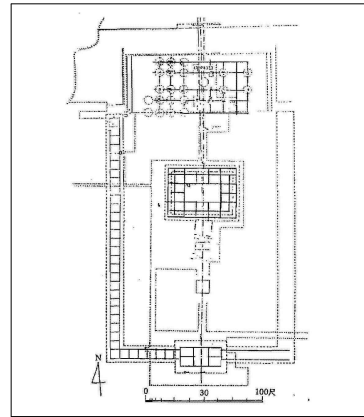


그림 7. 정림사지 배치도

부여 정림사지는 194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실시된 2008년 제8차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수행하는 부여정림사지 유적 정비·복원 연구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사에 기초하여 기존에 제시한 “부여 정림사지 유적 정비·복원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백제 창건가람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고자 우선 강당지 및 그 주변, 동회랑지 일대 약 2,780㎡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전면 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2008년 3월 7일부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창건가람으로 추정되는 강당지, 부속건물지(강당지 좌우 각 1기), 강당지 우측 부속건물지 동편의 구상유구, 석축배수로 1기, 소성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정림사지는 사역의 북동쪽이 자연적으로 낮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백제시대에는 북동쪽을 일부 깎고, 지형이 낮은 부분은 채워서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서쪽의 일부는 황갈색풍화암 반층 위에 건물을 조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남동쪽은 기반층 바로 점토층을 성토하여 그 위로 사찰 건물을 조영하였다. 강당지는 석탑의 중심으로부터 약 57.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 중심을 두고 위치하며, 중심축은 서쪽으로 약 1.08° 정도 기울어져 있다. 강당지 규모는 동서너비 39.1m, 남북길이 16.3m이다. 부속건물지는 강당지 기반 가장자리로부터 약 1.2m 간격을 두고 좌우에 대칭되어 위치한다. 남향한 일탑식 가람으로서 남쪽에서부터 중문터와 5층석탑, 금당터, 강당터 등이 남북축선에 놓였고 강당터 좌우에는 작은 건물이 각 한 개씩 놓였던 것 같고 중문과 이 건물터 사이에 회랑이 연결되었다. 백제시대 정림사지는 강당지 좌·우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지(부속건물지)가 회랑지까지 이어지도록 남북방향으로 길게 구축되어 있다. 이는 능산리사지나 왕흥사지와 유사한 형태로 볼

20)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133-134

수 있다. 백제시대 강당지는 북회랑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강당지 좌우로 독립된 건물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백제시대 정립사지의 강당지와 부속건물지 등은 모두 와적기단 구축방법에 의해 조성되었다. 지금까지 백제시대의 창건가람 이후 증축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백제시대의 정립사는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중문지와 연결되어 남회랑지가 자리잡고, 남회랑지는 동·서회랑지와 석축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구분된다. 동·서회랑지는 금당지 중심부 지점에서 시작되는 부속건물지와 연결되는데 부속건물지는 강당지보다 북쪽으로 연장된 세장방향으로 조성되었다. 21)정립사지에는 본래 목탑을 세웠는데, 뒤에 목탑을 없애고 5층의 석탑을 세웠다. 정립사 오층석탑은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정립사 오층탑은 목조의 조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석재가 갖는 재료의 특성을 적절히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목조탑의 조형미를 갖춘 석탑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정립사 5층석탑은 목조탑의 조형을 석탑으로 변안하여 새로운 조형세계의 지평을 열어간 대표적인 탑이다.22)

이 사지의 전체적인 배치형식은 1942년 발굴조사에서 중문, 탑, 금당, 강당이 남북 중심축선에 따라 배치되고, 중문에서 강당에 이르는 회랑이 있는 일탑식 가람배치임이 밝혀졌다. 남쪽에서부터 중문터와 5층 석탑, 금당터, 강당터 등이 남북 축선상에 놓여 있고 강당터의 좌우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씩 배치되었으며 중문과 건물 사이에는 회랑이 구성되어 있다. 1979~1980년에 충남대가 행한 조사에서는 금당기단이 동서 20.5m, 남북 15.6m인 2층 기단으로 되어 있고, 하층기단에는 연양간의 기둥을 받치는 초석의 적심이 남아 있었다. 이를 근거로 금당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강당의 기단은 그 규모가 동서 27m, 남북 13.1m였고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추정되었는데 강당터는 수차의 증창으로 인하여 유구의 교란이 많다.23) 전체 배치는 미륵사지처럼 정확한 균제에 의해 조정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배치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찰에서도 고구려 척으로 측정이 가능할 때 중심부분의 동서 폭이 130척, 중문에서 강당까지의 중심거리가 220척으로 비교적 폭이 좁은 긴 구획을 이루고 있다. 금당에서 강당까지의 중심거리는 90척(비례로 1:1:36:64)이며 중문지에서 석탑까지의 중심거리는 55척, 석탑에서 금당지 사이 중심거리는 75로 중문과석탑사이의거리가 다르며 탑에서 금당까지의 거리가 더 길다. 1984년에는 사역 남쪽의 연못에 대한 발굴이 실시되고, 사지전역의 정비와 연못의 복원이 있었다.24)

3.5 능산리 능사지

부여에서 논산가도를 3Km정도 가다보면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번지 일대 부여나성과 능산리 고분사이에 위

치한 계곡 하단부 좌측에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 사비시대 백제왕릉으로 추정되는 이곳에는 모두 16기의 능이 3개 군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능산리 고분군의 서쪽에 비교적 넓은 경작지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고, 이경작지 북쪽 언덕으로 절터가 발견되었다. 이 절터의 목탑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리 감실로 사용되었던 석재가 발견되었고, 여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명문에 의하면 이 절은 백제 창왕 13년(567)6세기 초반에 공주가 공양한 사리라는 것이고, 절은 이때 창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절은 일반사찰과는 달리 왕릉에 건립한 왕성의 원찰, 즉 능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능사의 배치의 전체적인 모습은 경사진 지형을 잘 살려 아래쪽으로부터 중문과 목탑 그리고 금당,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기본적인 1탑 1금당식으로서 백제의 전형적인 배치기법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배치구조로 보아 건물의 평면구조에서는 이 절터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점이 있다.

1995년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목탑, 금당, 남회랑, 부속건물지등이 확인 되었고, 유명한 금동 대향로도 함께 출토되었다. 중심사역 북쪽으로 대단위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가람의 배치는 문, 목탑, 금당, 강당이 남북일직선상으로 놓여지고 그 좌우로 회랑이 들어가면서 회랑북쪽에 부속건물이 배치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가람배치는 왕흥사지(577년),정립사지(6세기전~중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에는 한 변 길이가 30~40cm의 모전석10매를 사용하여 보도석을 놓았는데 현재는 8매만 남아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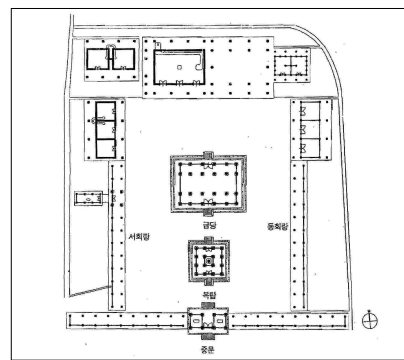


그림 8. 능사지 배치도

금당 북쪽으로 큰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흔히 백제의 가람 구조로 볼 때 여기에는 강당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평면구조로 보면 강당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정면 8칸, 측면 4칸이지만 중심선의 좌우 기둥배열과 벽체가 서로 다르다. 즉 동쪽의 반은 벽을 세운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서쪽의 반에는 가운데 내진 부분에만 벽을 세운 흔적이 있다. 이러한 평면은 강당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6) 삼국

21) <http://www.bvp.go.kr/2009>

22) 윤장섭, 한국건축사, 전게서, p.149

23)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전게서, p.152

24)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전게서, p.149

25) 국립부여박물관, 능산사지 발굴조사 진전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유적조사 보고서 제8권 2000, p.6

26) 대한건축학회, 전게서, p.170

지 동이전에 기술한 “거처할 곳에 좌우 큰방을 두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혼령과 사직에게 제사하였다”라는 기록과 연관 되는 듯하여 처음부터 이 사찰을 능사로 건립하였다면 이곳이 바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 능사는 백제의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능원에 건립하면서 그 기능에 따라 평면과 배치구조가 일반가람과는 차이가 있다. 이곳에서 명문이 있는 사리감이 출토되어 창건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당시의 가람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6 왕흥사지

왕흥사지는 부여 규암면의 신리 37-2번지 일대 북편으로 낮은 드므재산이 둘러싸고 있는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면으로는 백마강과 인접하는 저습지대이다. 사찰전면 남쪽 320m되는 곳에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강변에서 부소산과 낙화암이 바라보인다.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왕흥사 목탑지는 그 평면이 사방 14m이다. 북탑지 남쪽 18m 되는 곳에는 중문이 서있으며, 그 전면에는 폭13m, 길이 62m가 되는 방축을 만들어서 금강 쪽으로 돌출하게 하여 선박이 닿게 만든 시설의 흔적이 지하에서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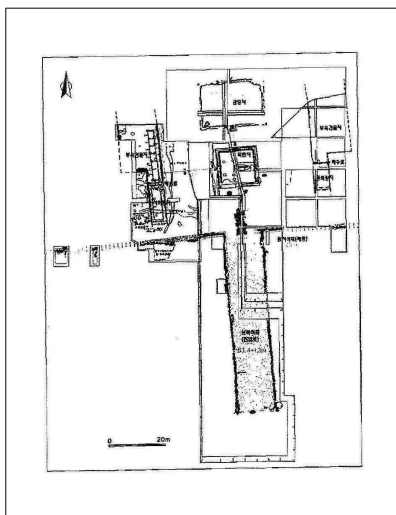


그림 9. 왕흥사지 배치도

중문 좌우 동서 방향에는 계속하여 석축을 축조하여 왕흥사 전면 회랑 앞까지 금강의 강물이 인접하게 만들었던 흔적이 땅속에서 발견되었다. 목탑지 동서에는 각각 19m 떨어진 곳에 동서 회랑지 및 부속 건물지가 발견되었으며, 목탑지 북쪽에는 남북을 향한 중심축선상에 금당지와 강당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10월에 이 목조탑 심초석 중앙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와 각종 장식품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청동제 사리합 몸체에서 한문자가 29자가 새겨져 있다. 청동제 사리합 안에는 은으로 만든 사리병을 넣고 그 안에 다시 금으로 된 사리병을 담은 3중세트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같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백제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것은 무령왕릉이후 백제 최고의 발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²⁷⁾ 무왕(武王) 35년(634)조에는 춘이월이 절이 강에 인접하게 만들었고 채색으로 장식하여 장려 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들어가 향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왕흥사는 위덕왕 23년(577년)에 창건하여 국가적으로 조영하기 시작한 대사찰이었으며, 577년 2월 15일 목탑 심초석 사리공에 사리를 넣었다. 지하시 심초가운데 사리공이 심초 내에 마련된 가장 빠른 사례로 볼 수 있다. 634년에는 금강의 강물을 인수하여 왕흥사가 강물에 인접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준공 되었고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하고 화목이 수려하여 사시의 미경을 갖추었다. 왕이 매양배를 타고 강을 건너 절에 들어와서 그 형승의 장려함을 감상했고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향을 피게 되었다.²⁸⁾

4. 종합고찰

부여 지역의 사지들은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일탑식 가람배치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기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각 사지들의 건립 연대가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백제가 수도를 부여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들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 사지의 형태로 미루어 군수리사지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 금강사지 순이고 정림사지는 제일 나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제의 사비천도 이후 부여지역의 몇 안 되는 사지는 부여 도읍 120년 동안에도 동일한 배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없고 부단히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도읍을 부여로 옮긴 시기는 백제의 왕권이 비교적 안정된 때이다. 이시기는 왕권이 귀족세력을 누르고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기로, 이 때 도성 주변에 세워진 많은 사찰들은 주로 왕권을 수호하고 왕실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려한 호국 사찰로서의 왕사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백제 사비시대 부여지역 1탑식 평지가람을 중심으로 행하여진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비시대 부여지역의 다수의 사지 가람배치는 부여 사비도읍 백여년간 부단히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창조되어 기본적으로는 평지 1탑식 가람배치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동남리사지와 같이 탑이 없거나 금강사지에서처럼 동서 중심축선에 따라 동향하여 배치한 가람이 있는 등 동일한 배치형태를 보이는 것은 없고 각기 조금씩 그

2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중일고대사지 비교연구(1)문화재청. 2009.p.41

28) 김부식, 삼국사기. 광조출판사. 1992. p.447

양식과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구분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금강사지	정림사지	능산사지	왕흥사지
가람배치	남쪽 평지에 백강을 면하여 남쪽으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 등이 남북축에 맞추어 배치. 가람 중심부를 방형 평면을 이루며 위치.	남향한 가람 남에서부터 중문, 금당, 강당 터가 남북축선상 배치. 금당, 강당, 중문의 중심축이 자오선상에 배치.	중문, 탑, 금당, 강당 등을 동서중심축선에 따라 동향하여 배치. 중심축이 남북방향이나 동서방향.	문, 탑, 금당, 회랑으로 둘러싸인 가장 전형적인 백제 1탑식	남북 일직선상으로 중문, 탑, 금당이 위치 한 기 1탑 1금당식	중문, 탑, 금당, 강당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자오선상에 놓이도록 배치. 주위에 회랑을 두른 전형적인 백제 1탑식 가람
당탑형식	남향한 일탑삼금당 형식. 탑 구조는 전돌, 금당, 강당지 등 모든 주요건물 기단이 유일하게 모두 외적기단으로 구축	금당 앞에 탑지가 없고 좌우측에 석조가 있는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사지의 남문지가 확인된 유일한 유구	일탑 일금당형식 사찰의 중심부 외곽의 뒤와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승방이 배치	원래 의 목탑을 5층의 탑을 안하여 세움	목탑 양식으로 회랑이 없음. 금당 사이에 모진 석을 사용한 보도석이 구축됨	목탑양식. 목탑지 동쪽에 회랑지 및 부속건물이 조영. 목탑지 북쪽에는 남문의 중심축선상에 금당과 강당이 있던 것으로 추정
가람용도	왕실, 귀족, 평민을 위한 일반 호국 사찰	왕실, 귀족, 평민을 위한 일반 호국사찰	왕실, 귀족, 평민을 위한 일반 호국사찰	도성 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위치한 절터로 보아 사비지역에서 도각 별존 중 반원찰이었다고 추정	능원에 건립, 그 기능에 따라 국가와 왕실의 장소 중시하는 사용 사례로 사찰로서 일반 가람과는 차이	국찰 기능의 국제적 가람. 가람의 형상이 장려하고 해로 교통이 연결되는 국제적 성격의 가람.

다섯째, 사비시대 부여지역 가람건축술은 뛰어난 건축적 창의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역동적 창안에 의해 조성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서 석재를 목재건축 양식으로 깎아 내면서까지 새로운 건축형식을 창출한 건축 문화적 개발의 의지와 적극성은 바로 진취적인 사비시대 백제 건축 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기술은 다시 일본에 전파되어 사비시대 백제의 건축은 과거 동아시아 변방의 수준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 보편성을 얻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1. 대한 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2005
2.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2008
3.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4. 박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3
5. 김봉열, 한국의 건축, 공간사, 1994
6.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지사, 1988
7. 김부식 저, 김종권 역, 삼국사기. 광조출판사, 1992
8.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중일고대사지비교연구(1), 문화재청, 2009
9. 한국전통건축연구회, 사찰건축, 황토, 1997

둘째, 각 사지 창건연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만 중루와 경루가 있는 사지를 가장 오래된 사지로 보고, 회랑의 형태가 남북방향으로 세장됨에 따라 창건시대가 늦어지는 것 등을 배치의 종합으로 볼 때 군수리사지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고 다음 금강사지 순이고 정림사지는 가장 늦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백제가 도읍을 사비지역으로 천도한 시기는 왕권이 귀족세력을 누르고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왕권이 비교적 안정된 때로써, 이때 사비지역에 도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많은 사찰들은 왕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호국 사찰로서의 왕사였다고 그 대표성을 띄우는 가람이 곧 부여능산리의 능사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사비시대 부여지역 평지 일탑식 가람지와 평양에 유존하는 고구려의 가람지를 비교해 볼 때, 고구려는 탑이 주로 팔각형인데 반하여 부여지역에서는 대부분 방형이고, 또한 고구려 가람지의 회랑은 횡방향의 긴 장방형인데 반하여 부여지역은 개개가 방형이었으며 금당도 고구려 가람지는 둘 내지 셋의 복수이던 것에 반하여 사비시대 부여지역에서는 하나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백제가 갖는 가람건축문화의 독특한 취향과 당시 두 나라의 불교가람 건축술에 영향을 미친 선진외래 건축문화의 남방과 북방의 수용창구의 차이점에서도 기인된다고 생각된다.